



새롭게 탈것된 우암동 도시 숲을 찾은 한 가족이 부산항을 배경하고 있다.

공동묘지 이전 후 녹지공간으로 탈바꿈

쓰레기 무단 투기와 도심 주거환경을 해치던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의 공동묘지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07년 3월 정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과의 업무협약, 476기의 묘지이전을 위한 보상, 주민설명회, 조성설계, 공사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진 3년6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장에 서면 부산항이 '한눈에'

구릉지에 조성된 공원의 특성상 황토 산책로는 약간 가파른 직선코스라 나선형코스로서도 연결되어 있다. 구월양장(九折羊腸), 꼬불꼬불 황토길 가에는 왕벚나무, 에기동백이 있고 요소요소에 벤치가 쉬어가기기 기다린다. 정상 광장에는 이 공원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기막힌 전망이 펼쳐진다.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거칠 것 없는 시야다. 광장에서 왼쪽으로 이전 군부대 포진지를 예뉘러 가면 자생 편백림과 빛나무, 아까시나무, 미루나무 등이 터널을 이루고 새들의 지저귀는 도사들의 피로를 잊게 한다.

운동·편의시설 설치

'도시 숲'으로 재탄생한 공원은 2만3,079㎡로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을

모토로 태양열 가로등 8점, 1,932㎡에 달하는 황토 산책로, 자생 잡나무와 소나무, 편백림을 그대로 살려 최대한 인공을 배제한 조경에 정성을 쏟았다.

이와 어우러지게 왕벚나무, 편백, 철쭉, 에기동백, 수국 등 6종 2만8,000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사철 푸르고 꽃이 피는 공원 만들기 에 힘썼다.

그 외 2곳의 정자, 벤치 23점, 하늘 길, 운곡 노 젓기 등 여는 공원에서는 보기 드문 야외 헬스형 생활체육시설 2곳까지 갖추었다.

주민 산책로로 벌써부터 인기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나들이와 자연학습장소로도 한몫하게 될 공원은 벌써 주민들이 접수(?)해버렸다. 황토산책로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혹은 나란히 걷는 주민들에게 물었다. 우암1동에 사는 우

순희(여·56)씨는 "잠 좋아요"로 말문을 연다. "전에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는데 지금은 공원을 한바퀴 돌고도 전망이 너무 좋아서 한참 쉬었다 가요"라며 일행과 환하게 웃었다. 우암2동 이창열(남·35)씨는 "주민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암동에 공원이 들어서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전망 좋은 곳에서 헬스까지 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밝혔다.

새로 조성된 공원에 아직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일이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고요와 쾌적함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공원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오지역으로 사람의 발길이 뜸하던 곳에 공원이 조성됨으로서 사람이 모이는 곳, 주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두래 기자

옛것의 향취가 '오롯이'

문현2동 골동품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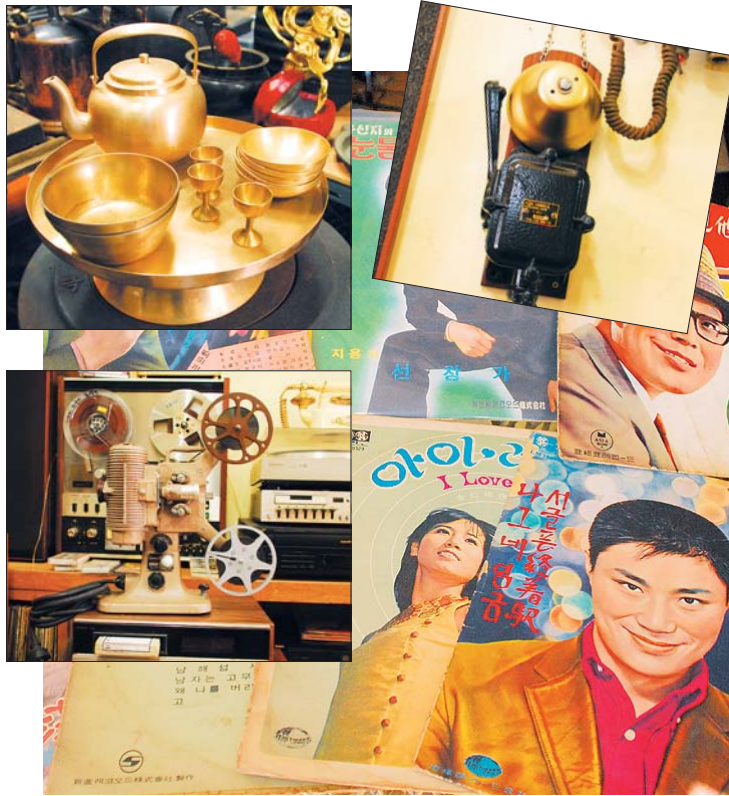
문현2동 남동천로 76번길 주변이 남구 골동품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동천의 일명 '썩은다리'(무지개 다리)를 건너 문현동으로 들어서면 군데군데 자리잡은 골동품점이 눈에 띈다.

약 4.5년 전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이곳 골동품 가게는 현재 15군데 정도가 된다. 이들은 대부분 진구 범천동에서 비싼 임대료 탓에 옮겨와 오늘에 이르렀다.

물론 망미동 골동품 거리나 구덕골 문화장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남구에 품을 거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 반가를 따름이다. 천천히 둘러보면 땃돌, 절구, 문파 등이 가게 문밖에서 눈길을 잡고, 고가구, 서화, 도자기, 방짜그릇, 목공예품 등이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골동품점 중에는 디지털 기기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LP 음반과 구식 축음기 등만을 취급하는 곳도 있다. '만물소리사'에 전사된 8트랙 카세트에 백아성의 테이프를 넣으니 '잘있거라 부산항'이 구성진 목소리로 흘러나온다. 가격을 묻자 "30만 원 정도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석 벽면에는 남일해, 배호, 황금성, 김추자 등의 LP판이 빼곡하다. 마치 추억의 음악박물관이 연상된다.

간판 이름이 에스러온 '고당'은 근대 엔틱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가정용 8mm 영상기를 비롯하여, 영화이나 나폴레옹 제닉스 라디오, 대



4~5년 전부터 형성 15곳 성업 중

서화 축음기 엔틱가구 등 주류 이뤄

한전선 라디오, 일제 자바라 카메라 등이 즐비하다. 이곳에서 물건이 가장 많아 보이는 '중앙만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진귀한 것이 수도북하다. 입구에 흑색 옷걸이를 한 선비상이 고졸한 멋을 풍겼고, 중앙에 다소곳한 고가구와 전통공예품들이 격조 있게 보인다. 이 가게는 주로 도매상과 거래가 많지만, 골동품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려는 시민과 5, 6대 중장년층이 향수를 찾아서 간간히

들른다고 한다.

주인장 이창용 씨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을 묻자 250만원대의 전주장을 가리킨다. 좌우대칭무늬의 간결한 선 사이로 무쇠장식이 돋보인다. 또한 그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곳이 재개발되고 규모가 커져서 남구의 문화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옛 물건의 소중함을 공감 있다는. 가게들도 연합하여 선조들의 숨결이 들어있는 옛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화 기자

우암2동 밝은누리공부방 “새 보금자리 생겼어요”



새롭게 문을 연 공부방에서 어린이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공부방이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밝은누리공부방'이 지난 8일 많은 주민들의 축하 속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우암2동 125-34번지 동향성당 앞

에 새보금자리를 틈 공부방은 연면적 137㎡, 지상2층 슬래브 건물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공부방 개소에는 지역주민들의 남다른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외방 선교수녀회는 20년간 사용해 오던 기존의 공부방이 노후 폐 이전을 결심하고 지난 5월 현재의 건물을 1억1,5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 방송·전기공사와 보일러교체, 미장, 벽지·장판 교체, 욕실 수리 등의 이전에 따른 보수 공사비 1,500만원이 부족해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우암2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명현 의장과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구청 주민복지과장, 밝은누리 시설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끝에 우암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민 자발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지난 8월부터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각급단체와 독자가 등의 동참에 힘입어 580만원을 모아 공부방에 전달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별도 후원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밝은 누리공부방은 현재 우암동 일대 저소득가정의 아동 29명이 대학생 자원봉사 교사 60명과 1:1 멘토링을 통해 모든 과목을 개인지도 받으며 부족한 학업을 쌓고 있다. 이와 함께 창의과학 활동과 독서프로그램, 음악 수업(오카리나), 미술심리치료, 무용 치료 수업도 받고 있다.

밝은 누리공부방 관계자는 "모두가 어렵게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며 "지도에 최선을 다해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모금운동으로 이전 보수공사

저소득층 어린이 학업 성취도 높여

문현어린이공원 새단장했어요

문현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났다. 남구는 지난 22일 오후 공원 내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노후된 시설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이곳에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최근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새롭게 단장된 364㎡ 규모의 공원에는 조합놀이 등 놀이시설이 설치됐으며 바닥은 탄성 포장에 안전성을 높였다. 주위에 8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관을 한층 아름답게 꾸몄다.



문현어린이공원에서 키즈킬링어린이집 원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놀이시설 설치, 탄성 포장



아모레 퍼시픽 꿈을 활짝 펼치세요!

성/공/예/관

헤라·설화수
주문·상담
☎ 627-2225



- 당신이 꿈꾸는 보금자리가 여기에
- 최고의 대우, 최적의 근무조건!
- 아모레 주부사원 카운셀러 모집

친절상담 안내 : 최경숙 부장
T. 627-2225 직통. 011-579-1122



남부지점(대연사거리)

대호레포츠 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가을맞이 전 종목 대폭 할인 행사

위치 :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

예비중등생(현 초등6학년)

중학대비 브릿지 영어집중과정 개설

12월 1일~2월 11일(10주 대특강)

2011학년도 예비초등1년생 대상

부경대 초중등영어프로그램 신규 입학생

현재 선착순 원서접수

ECA 성인 원어민 영어회화

BASIC/ELEMENTARY/INTERMEDIATE/ADVANCED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부 629-6852

오륙도 주부 탁구 교실

초급A반: 10:30~11:30 초급B반: 11:30~12:30
각반10명 월3만원 수시모집!(관장직접레슨.주3회)

관장 : 임 성 순

유산소 운동에 재미까지!!!
즐겁게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오륙도 탁구장

용호4동 예문여고 앞 미주아파트 상가
Tel. 624-2939 / 010-2964-7002

남구주민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2010년 11월 8일

수강료: 6만원 월, 수, 금 10:00~10:50 (10명)		초보자 컴퓨터 확실히 익히기				
		인터넷검색, 이메일 보내기, 워드작성 등				
대상: 남구주민 (주부, 노인, 실직자) 선착순 10명						
국비 노동부		계좌제(실업자) 훈련안내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전산응용조선제도 및 선제설계	11월 중 개강 (화원문외)	2개월	11:30~13:30 (월~금, 주5일)	10명	14만원	56만원
CAD실무			14:00~16:00 (월~금, 주5일)	10명	12만원	48만원
사무직전문과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11:00~13:0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전산실무자격증 (워드, 엑셀자격증)			13:30~15:3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대학졸업자, 일반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시는 분 (요동비 월 5만원 지급, 선착순 마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 옆, 베이직하우스 8층						